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술만 마시면 필름 끊기는 당신 혹시 치매?

<블랙아웃>



<신재정 원장>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지..." "어! 전화 걸었던 기억이 없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를 갖는 직장인들에게 필름이 끊긴 지난 밤은 떠올리고 싶지도, 떠오르지도 않는 시간일 것이다...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어졌다'고 표현되는 '블랙아웃' 현상은 알코올이 대뇌에 영향을 미쳐 술자리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건보 광주본부 '아름다운 나눔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병식)는 지난 18일 아름다운 가게 봉선점에서 나눔 기금 모금액 23억 돌파를 기념하기 위한 '아름다운 토요일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동아병원 건강대학 가을강좌 시작

동아병원(대표원장 정재훈)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동아건강대학 2008년 가을학기'가 최근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강좌를 시작했다.

순천효자요양병원, 日 병원과 교류 협약

노인재활전문병원인 순천효자요양병원(이사장 은희남)과 순천은병원(이사장 김정애)은 지난 17일 효자요양병원에서 자매결연병원인 일본 오사카 사카모토병원과 관사리하리센타병원을 관계자들과 상호교류 협약을 맺었다.

알코올성 치매

필름이 자주 끊겨요=술을 마신 뒤 소위 '필름이 끊어졌다'고 표현되는 단기 기억상실증은 다르다. 사람이 차이를 인지할 줄 알코올농도 0.15% 정도부터 기억력 장애가 나타난다.

과도한 음주 뇌세포 손상... 기억 능력 떨어뜨려 장기간 방치하면 '블랙아웃'→ 알코올성 치매 음주 습관 고치고 한번 마신후 3~5일 쉬어야

알코올성 치매의 초기증상인 베르니케-코사코프 증후군은 과도한 음주로 비타민인 일종인 '티아민(비타민 B1·thiamine)'이 결핍되면서 기억능력이 점차 떨어진다.

간은 인체의 화학공장... 술에 절은 내 간 괜찮을까

20일은 '간의 날'이다. 간은 3천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구성된 장기로 우리 몸속 장기 가운데 가장 크다.

간 수호 음주수칙 8계명

- 1. 2잔의 대드라이를 넘지 않는다. 2. 음주 후 3~5일은 절주한다. 3. 자신의 주량 이상 마시지 않는다. 4. 괴로움을 술로 풀지 않는다. 5. 빈속에 마시지 말고, 과일·야채 안주를 꼭 먹는다. 6. 술을 혼자 마시지 않는다. 7. 간질환이 있다면 절대 금주한다. 8.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한다.

지방간 환자 한달 평균 소주 7.25병 마셔

20년새 환자 3배 늘어

간세포 내 중성지방이 정상치 이상인 지방간 환자가 지난 20년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7년까지 경북삼성병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7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2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showtimes, and promotional images for films like 'Modern Boy' and 'The Last Days of Disco'.